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A Comparison of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and Their Determinants of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인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 교 수 성 영 애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전임강사 양 세 정

Dept. of Home Management, University of Incheon
Assistant Professor : Young-Ae Sung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Se-Jeong Y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요약 및 시사점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consumption expenditure patterns an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of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in urban areas of Korea.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1994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ults showed the differences between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in the expenditure levels of each consumption category, the shares of each consumption category of total expenditures, and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on expenditures.

I. 서론

인구구조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현상이 노인인구의 증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에는 5.4%였던 것이 1980년에는 6.1%, 1990년에는 7.4%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00년에 노인인구의 비율은 10.2%, 2021년에는 18.5%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철기, 박능후, 김성희, 이경은, 1992).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력의 감소와 부양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동반함으로써 노인인구에 대한 경제적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을 야기시키는 한편,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의 축소상황과 더불어 안정적 노후대비책에 대한 모색을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다. 즉, 고령화사회로의 전이에 따른 노인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사회적인 대책과 개 개인의 대책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노년기를 위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하나로 노년기에 필요한 소비수준(consumption need)을 나타내줄 수 있는 소비지출행동에 대한 정보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노후에 필요한 자산이나 소득규모는 노년기에 필요한 소비량에 상대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Duncan, Mitchell & Morgan, 1984; 성영애, 1994).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행동을 분석하고, 이들이 비노인가계와는 다른 소비지출행동을 보여주는지, 또한 그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다른 소비지출행동을 보여주게 되는지 그 패턴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최근 노인가계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가계내에서 보여지는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노인을 단순히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Quinn, 1987). 이러한 주장은 노인가계내에도 가계의 특성에 따라 소비지출패턴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가계에 대한 이해는 도시가계연보에서 매년 제공하고 있는 단순통계자료나, 가계의 다양한 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연령을 영향에 미칠 수 있는 하나의 가계특성으로서만 다루고 있는 연구결과에 대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노인가계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규모와 패턴을 비교함과 동시에 노인가계가 갖는 다양한 특성이 소비지출규모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각의 특성을 갖는 노인가계들에 적합한 소비수준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며, 노인을 위한 경제적인 대비책 마련에 관심을 갖는 정책수립가나 앞으로 노년기를 맞게 될 중·장년에게 노후대비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가계의 소비지출행동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갖고 이루어져 왔으며, 그러한 관심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가계소비가 국가경제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임과 동시에, 개별가계의 측면으로는 생활의 질을 나타내주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비지출행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가계소비지출행동에 미치는 사회인구 및 경제적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소비행동의 개선방향의 제시 및 미래의 소비행동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계소비지출행동은 가계소득, 가족원수, 가족구성, 가구주의 연령, 직업 및 교육수준, 거주지역, 계절, 가치관, 생활의식구조 등에 따라 규모가 달라짐을 발견하였다(e.g., 김기욱, 이승신, 1990; 양세정, 1996; 최은숙, 1986; Horton & Hafstrom, 1985 등).

이러한 맥락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가족의 욕구를 결정짓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생활주기단계

를 반영하는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어 왔는데(최은숙, 1986), 그 결과 제시된 자료로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는 노인가계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가계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소비지출행동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들이 일반적인 소비지출행동에 관한 연구라 한다면,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특정한 가족 유형에 대한 소비지출행동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사회·인구·경제학적인 변화에 따라 관심이 증가되고 있거나 또는 사회적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특정유형의 가족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¹⁾ 특히 노인가계의 증가현상과 관련하여 노인의 소비지출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또는 노후를 대비한 정책적, 개인적인 대책마련에 대한 기본자료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행동을 비노인가계와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Fareed & Riggs(1982)는 미국의 전국규모 자료인 1972-73년도 Consumer Expenditure Survey(CES)를 이용하여 가계의 소득, 가족수, 교육수준, 인종, 은퇴 여부, 지역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총소비지출에 대한 소득의 영향력에 있어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평균소비성향과 한계소비성향에서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각 지출비목별로 각각의 가계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에서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줌으로써, 노인가계가 갖는 특성이 달라지면 노인가계의 지출행동도 달라질 것이며 그 영향을 주는 방식도 비노인가계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Harrison(1986)은 1984년도 CES를 이용하여 노인가계의 연령에 따른 소비지출패턴을 고찰하였다. 그는 가구주 연령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고려하지 않았지만, 노인가계를 연령에 따라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같은 노인가계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소비지출패턴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그는 노인집단을 65-74세인 집단과 75세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소비지출비목에 대한 지출패턴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집단은 총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사하였지만 주거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세 이상인 집단의 경우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나머지 지출비목의 경우는 65-74세 집단의 경우가 더 높았다.

Hitschler(1993)는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규모와 패턴을 역시 65-74세 집단과 75세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함과 동시에 노인가계의 지출패턴이 1980년과 1990년에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두 집단 모두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식료품비, 교통·통신비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두 기간에 모두 65-74세 집단이 주거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의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보다는 1990년대의 소비지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났다.

Moehrl(1990)은 노인의 소득수준과 취업상태에 따라 소비지출패턴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1986-1987년도 CES에서 가구주가 62-74세인 가계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취업노인가계는 저소득층 비취업노인가계보다 소비규모가 25%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출비목에 대한 배분도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Rubin & Nieswiadomy(1994)도 노인의 취업상태가 소비지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였다. 그는 1986-1987 CES자료에서 가구주 연령이 50세

1) 예를 들면, 기존의 소비지출행동이 주로 도시가계에 대해 이루어진 것에 반해 일련의 연구자들은 농촌가계의 소비지출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e.g., 최은숙, 1986; 김인숙, 최은숙, 1990 등). 또 다른 일련의 연구자들은 편모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가정은 일반가정과는 소비지출행동에 있어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편모가정에 대한 소비지출행동을 분석하였다(e.g., Horton & Hafstrom, 1985; 문숙재, 정순희, 1995 등).

이상인 가계를 취업가계와 은퇴가계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소비지출패턴의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노인과 비노인가계간에는 소비지출규모나 패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것을 보여 주고 있으며, 동시에 노인가계내에서도 그들이 갖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소비지출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며 또한 각각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비노인가계와는 다를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연구문제 1〉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와 소비비목별 지출규모 및 배분양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노인가계가 갖는 어떤 특성이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비노인가계에서 보여지는 양상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2를 위한 통계적 검증모형은 세 가지 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먼저 앞서 논의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조하였으며, 또한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행동의 특성을 파악함의 목적이 향후 정책반영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려된 관련변인을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가 기존자료를 이용하는 실증연구이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점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사용된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가계소득, 가족수, 교육수준, 가구주연령, 가구주성별, 자가소유여부, 직업, 계절 등이 고려되었으며, 실증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 C_j = & b_0 + b_1 \ln Y + b_2 \text{ SIZE} + b_3 \text{ AGE} + b_4 \text{ ED1} \\ & + b_5 \text{ ED2} + b_6 \text{ ED3} + b_7 \text{ SEX} + b_8 \text{ HOME} \\ & + b_9 \text{ OCC1} + b_{10} \text{ OCC2} + b_{11} \text{ OCC3} \\ & + b_{12} \text{ OCC4} + b_{13} \text{ OCC5} + b_{14} \text{ MON1} \end{aligned}$$

$$+ b_{15} \text{ MON2} + b_{16} \text{ MON3} + e_j$$

이때 $\ln C_j$ 는 j번째 소비비목에 대한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자연대수값이며, $\ln Y$ 는 가계의 총소비지출액의 자연대수값이다. 가계의 소득수준을 나타내주는 변수로서 가계의 현재소득대신 총소비지출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총소비지출이 항상소득의 대용변수로 이용될 수 있으며(Dardis, Derrick & Lehfeld, 1981; 문숙재 등, 1995), 또한 비근로자가계의 경우 가계소득자료의 신빙성부족으로 이들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도시가계연보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대용변수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ln C_j$ 와 $\ln Y$ 의 관계는 소비함수의 Engel함수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양대수형을 취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은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함을 반영하였다(Dardis, et al., 1981; 문숙재 등, 1995; 최현자, 1996). 그 결과 나타난 $\ln Y$ 의 회귀계수는 소비지출탄력성을 나타낸다.

SIZE는 가족규모를 연속변수의 형태로 사용하였으며, AGE는 가구주 연령을 나타내주는 연속변수이다. ED1, ED2, ED3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주는 가변수로서 기준이 되는 집단은 국졸이하이며 ED1은 중졸, ED2는 고졸, ED3는 전문대졸 이상을 나타낸다. SEX, HOME은 각각 성별(기준집단: 여자)과 주택소유여부(기준집단: 비소유)를 나타내주는 가변수로 사용하였다. OCC1, OCC2, OCC3, OCC4 및 OCC5는 가구주의 직업을 나타내주는 가변수로서 기준집단은 봉급자이며, OCC1 -OCC5는 각각 노무자, 소규모자영업자, 경영자, 자유업자, 무직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자료인 도시가계조사는 월단위로 수집된 자료이며, 따라서 이러한 계절적 효과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절을 나타내는 가변수인 MON1, MON2 및 MON3을 포함하였다. 기준집단은 여름으로 MON1, MON2, MON3은 각각 봄, 가을, 겨울을 나타낸다. 한편 b_0 는 상수항이며, b_1 - b_{16} 은 회귀계수, e_j 는 오차항이다.

회귀식을 추정함에 있어서 종속변수에 자연대수를 취하였기 때문에 가변수의 회귀계수($b_4 \sim b_{16}$)는 Dardis 등(1981)이 이용한 방식으로 해석가능한 형태

로 변환계산되었다. 이를 결과에서는 변환된 회귀계수로 설명하였다. 즉 회귀계수에 역로그(anti-log)를 취하여 각각의 계수를 다시 계산하였는데 그 결과의 해석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회귀분석 결과 0.102의 값을 구했을 경우 이것의 역로그를 취하면 $e^{0.102}=1.11$ 의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값의 의미는 가변수의 기준집단과 비교하여 지출규모가 11%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상기모형은 OLS방법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두 집단에 대해 각각 측정되었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집단간에 각각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how-test를 실시하였다.²⁾ 이상의 모든 전산처리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2. 자료

본 연구의 자료는 통계청이 1994년에 실시한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이다. 이 자료는 전국 69개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계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 수집하고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비목별 지출은 가계부 기장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가계소득, 가구원수, 주거상태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면접조사에 의한다. 매일 5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12개월동안 조사하여 전체 표본의 수가 6만여가구에 이른다. 이들 가구 중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들을 제외한 후, 전체가구중 10%를 임의로

추출한 6,299가구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일반적으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분류는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연구의 목적에 따라 55세에서 65세사이를 기점으로 나뉘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60세이상인 가계를 노인가계로 칭하기로 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경제활동인구관련 통계를 추정함에 있어 60세이상을 노인층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통계청, 1995), 또한 사회적으로도 퇴직정년을 정하는 기준으로 60세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고철기 등, 1992, p.13)이 있기 때문이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총분석대상가계는 6,299가계였으며, 이 중 7.0%인 438가계가 노인가계였고, 나머지 93.0%인 5,861가계가 비노인가계였다. 이에 의하면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는 가계소득을 제외한 모든 특성에서 다른 분포 또는 다른 수치의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가계의 평균가족수는 2.96명으로 3.83명의 비노인가계에 비해 적으며, 교육수준도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계의 절반 가까이 가구주가 국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65.61세였다. 가구주 성별을 살펴보면 노인가계의 경우 여성가장이 다소 많아서 21.2%였고, 반면 비노인가계는 13.7%를

2) Chow-test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두 개의 집단을 같은 회귀식으로 구했을 경우 각 변수의 영향력이 의미있게 서로 다른지 검증해 준다(Koutsoyiannis, 1977).

$$F^* = \frac{[\sum ep^2 - (\sum e1^2 + \sum e2^2)]/K}{(\sum e1^2 + \sum e2^2)/(n1+n2-2K)} \sim F(K, n1+n2-2K)$$

$\sum ep^2$ = 전체집단의 자승합

$\sum e1^2$ = 집단1의 자승합

$\sum e2^2$ = 집단2의 자승합

K = 독립변수의 수+1

n1 = 집단1의 수

n2 = 집단2의 수

〈표 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특성비교

독립변수 (분석대상가구수)	전체가계 (6,299가구)	노인가계 (438가구)	비노인가계 (5,861가구)	차이검증
가계소득(원)①	1,681,512	1,594,152	1,685,183	t=.62
가족수(명)	3.78	2.96	3.83	t=14.59***
교육수준(%)				$\chi^2=519.57^{***}$
국졸이하	12.0	45.7	9.4	
중졸	14.3	14.2	14.3	
고졸	44.6	23.5	46.2	
전문대이상	29.2	16.7	30.1	
가구주연령(세)	40.84	65.61	38.99	t=-98.43***
가구주성별(%)				$\chi^2=18.85^{***}$
남자	85.7	78.8	86.3	
여자	14.3	21.2	13.7	
자가소유여부(%)				$\chi^2=135.44^{***}$
비소유	51.7	24.9	53.7	
소유	48.3	75.1	46.3	
직업(%)				$\chi^2=863.32^{***}$
봉급자	26.9	9.8	28.1	
노무자	30.3	13.7	31.5	
소규모자영업자	6.6	13.5	6.1	
경영자	26.0	18.0	26.6	
자유업자	2.7	3.4	2.7	
무직	7.5	41.6	5.0	

* p < .05 ** p < .01 *** p < .001

①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근로자가구이외의 가구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분포표의 가계소득 평균은 근로자가구의 경우만 계산된 것임.

보였다. 자가소유여부는 노인가계가 월등히 높아서 75.1%의 가계가 이에 해당되었으며, 비노인가계는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46.3%에 불과하였다. 노인가계의 41.6%가 무직이었으며, 경영자인 경우가 18.0%의 수치를 보였다.

IV. 연구결과

1.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규모 및 지출비목별 구성비

〈표 2〉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규모

를 제시한다. 먼저 총소비지출의 규모를 살펴보면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액수가 933,810원으로 비노인가계의 평균치인 1,139,143원보다 22%가량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교통·통신비지출의 차이가 가장 현격하여 노인가계는 월평균 56,446원 지출한 반면, 비노인가계는 131,442원으로 배가 넘었다. 이 밖에 자녀들의 양육비와 관련이 높은 교육·교양오락비와 피복·신발비 등에서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기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기타소비지출 액수에서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수치상 유일하게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액이 높은 비목이 보건의료비로서 노인가계는 월평균 66,225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비노인가계의 55,660원에 비해 다소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격차는 아니었다.

총소비지출에서 각 비목별 지출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표 3>에서 제시하였다. 각 비목별로 살펴볼 때 노인가계의 경우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및 기타소비지출이 전체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계의

경우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7.9%를 차지함으로써 비노인가계의 4.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피복·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노인가계보다 노인가계의 경우가 낮았다.

이러한 지출구성비의 차이에 따라 두 집단간의 지출구성비 순위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보건의료비가 전체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노인가계의 경우 7번째인데 반해 노인가계는 3번째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었으며, 반면 비노인가계는

<표 2>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의 비교

지출비목	노인가계	비노인가계	t-test
총소비지출	933,810	1,139,143	4.11***
· 식료품비	330,924	335,662	.21
· 주거비	34,158	43,303	1.02
· 광열·수도비	43,745	46,222	1.24
· 가구·가사용품비	40,856	56,393	1.26
· 피복·신발비	70,467	89,567	2.71**
· 보건의료비	66,225	55,660	-1.50
· 교육·교양오락비	85,874	166,493	5.55***
· 교통·통신비	56,446	131,442	8.90***
· 기타소비지출	205,115	214,403	.52

* p < .05 ** p < .01 *** p < .001

<표 3> 노인가계과 비노인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의 비교

지출비목	노인가계		비노인가계		t-test
	구성비(%)	순위	구성비(%)	순위	
· 식료품비	.385	1	.339	1	-5.88***
· 주거비	.034	9	.038	9	1.11
· 광열·수도비	.068	6	.050	6	-5.55***
· 가구·가사용품비	.035	8	.040	8	1.32
· 피복·신발비	.056	7	.079	5	5.82***
· 보건의료비	.079	3	.048	7	-5.62***
· 교육·교양오락비	.073	4	.126	3	8.13***
· 교통·통신비	.069	5	.093	4	9.18***
· 기타소비지출	.203	2	.188	2	-2.14***

* p < .05 ** p < .01 *** p < .001

교육·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등의 구성비순위가 노인가계에 비해 높았다.

비노인가계보다 노인가계에 있어 보건의료비구성비가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원의 높은 연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일 것이다. 또한 필수제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식료품비 및 광열비의 비중이 비노인가계보다 노인가계의 경우 높게 나타난 것은 노인가계의 지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노인가계보다 비노인가계에서 교육·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등의 구성비가 더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들 비목이 자녀의 양육 및 가구원들의 경제활동과 관련이 높은 지출항목으로 가족생활주기상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 관련요인

이제까지 노인가계를 하나의 집단으로 파악하여 비노인가계와 비교함으로써 소비지출행동을 파악하였다. 본 절에서는 노인가계내에서도 그들이 갖는 특성에 따라 소비지출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비노인가계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 지를 알아보았다(〈표 4〉 & 〈표 5〉).

연구모형의 설명력

〈표 4〉에 의하면 소득을 포함한 가계의 특성이 각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비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노인, 비노인가계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각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연구모형에서 독립변수로 포함된 가계의 특성들은 각 소비지출비 분산의 4%~68%에 이르기까지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노인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설명력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설명력보다 모든 비목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에서 식료품비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보건의료비에 대한 설명력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의 경

우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외에 가구원의 만성질환보유여부등 보다 직접적인 원인변수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설명력이 노인가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이들 집단의 경우 소비선호를 반영하는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소비패턴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Chow-test결과를 보면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에 주거비를 제외한 8개 비목 모두에서 가계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호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즉, 각 가계의 특성이 각 비목에 미치는 영향력의 양상은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에 다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소비지출함수에 있어 연령과 기타 가계특성 변수는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그 영향력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총소비지출탄력성

가계의 항상소득수준을 나타내주는 총소비지출이 각 소비비목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노인가계의 광열·수도비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료품비,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의 탄력계수가 1이하로 나타나서 이 세 가지 소비지출비목이 필수비목인 것에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의 소비지출의 영향력은 그 크기에 있어 차이를 보여주었다. 비목별 소비지출탄력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통하여 검증해 본 결과(〈표 5〉), 모든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탄력성의 절대적 크기에 있어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비노인가계보다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탄력성이 더 크게 나타난 비목은 식료품비, 주거비, 기타소비지출로 나타나, 노인가계의 경우 비노인가계에 비하여 이 비목에 대한 욕구가 간절함을 시사하였다. 반면 나머지 모든 비목에 있어서는(9비목중 6비목)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탄력성이 더 낮게 나타나서, 총소비지출증가에 따른 이 비목들에 대한 소비효과는 노인가계의 경우 덜 민감한 것을 시사해주었다.

식료품비

가계의 식료품비는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에서 모두 낮은 소비지출탄력성을 보이는 비목이다. 노인가계의 경우 예상할 수 있듯이 가족수가 증가함에 따라 식료품비는 증가하였으며, 계절적으로는 봄철이

여름에 비해 식료품비지출이 21%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 봉급자가계에 비해 식료품비지출이 23%정도 적었으며, 교육수준이 중졸인 경우 국졸 이하인 경우보다 식료품비 지출이 20% 더 많았다.

〈표 4〉 가계특성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노인	비노인	노인	비노인	노인	비노인	노인	비노인	노인	비노인
회 귀 계 수										
소비지출탄력성	.74***	.52***	2.18***	1.68***	.21	.26***	1.10***	1.23***	1.52***	1.71***
가족수	.05*	.06***	-.82***	-.47***	.05	.10***	.24*	-.01	.87***	.11**
가구주 연령	-.01	.003***	.03	-.02*	-.02	.01***	-.05***	-.03***	-.07	-.02***
변 환 된 회 귀 계 수										
교육수준 (기준:국졸이하)										
중졸	1.20**	4.86E-04	0.21*	.69	1.17	1.00	.10	1.01	.76	1.48*
고졸	1.07	1.03	.66	1.05	1.39	1.02	1.68	1.00	2.20	1.45*
전문대이상	1.01	1.03	3.78	1.86	1.55	1.02	2.56*	1.08	1.39	1.49*
가구주성별 (기준:여자)										
남자	1.12	1.07**	1.20	1.39	.72	1.03	1.26	1.15	.29*	.79
자가소유여부 (기준:비소유)										
소유	.95	1.03**	.19**	.49***	2.10***	1.20***	.81	1.08	.79	.82*
직업(기준:봉급자)										
노무자	.90	.97	1.62	1.13	1.14	.92	1.75	1.03	1.32	1.06
소규모자영업자	.84	.99	9.58*	1.95*	1.52	.72**	2.72	1.20	.32	1.39
경영자	.90	1.04**	1.73	1.14	.96	1.00	1.14	1.04	.28	.98
자유업자	.88	1.07*	1.07	1.42	1.43	1.11	1.08	1.32	.31	1.08
무직	.77**	.90***	1.84	.90	1.04	.92	3.16*	1.14	.70	.61*
계절(기준:여름)										
봄	.79**	.90***	1.23	1.03	1.40	1.39***	.45*	.81***	1.21	1.88***
가을	1.02	.99	1.45	1.27	1.63	1.40***	.40*	.85*	.67	1.34
겨울	.90	.90***	.50	1.14	2.10***	2.10***	.46*	.72***	.37	1.19
상수항	2.94***	5.03***	-24.85***	-15.81***	7.64***	5.58***	-4.20	-6.48***	-8.87	-13.55***
Adj.R ²	.68	.48	.11	.04	.12	.09	.14	.12	.17	.10
Chow-test (F값)	7.48***		1.18		2.01*		87.38***		1362.38***	

* p < .05 ** p < .01 *** p < .001

〈표 4〉 계 속

독립변수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노인	비노인	노인	비노인	노인	비노인	노인	비노인
회 귀 계 수								
소비지출탄력성	1.20***	1.33***	1.27***	1.55***	.69***	.96***	1.50***	1.10***
가족수	-.23	.08	.73***	.32***	.08	-.03*	-.03	-.05***
가구주연령	-.03	-.01	.02	-.01	-.03*	-6.88E-14	-.02	.004
변 화 된 회 귀 계 수								
교육수준 (기준:국졸이하)								
중졸	.33	1.07	2.64*	1.19	1.46*	.96	1.16	1.20**
고졸	.86	.90	1.08	1.27*	1.32*	1.06	1.68*	1.09
전문대이상	.11**	.75	.96	1.31*	.96	1.21***	1.30	1.15*
가구주성별(기준:여자)								
남자	3.42*	2.14***	.17***	.86	1.08	.95	1.48	1.21***
자가소유여부 (기준:비소유)								
소유	.79	.97	1.48	1.01	1.08	1.02	1.15	1.08**
직업(기준:봉급자)								
노무자	1.01	1.32	.31*	.90	.94	.88***	1.52	.92
소규모자영업자	.73	1.01	.23*	1.06	.98	.90	1.95	.68***
경영자	.49	1.09	.29*	1.02	1.00	.85***	2.03*	.84***
자유업자	.51	.65	1.86	1.05	1.62	.93	1.23	.92
무직	3.00	1.05	.99	1.13	.95	.90	1.21	.66***
계절(기준:여름)								
봄	3.46*	.95	1.43	1.06	1.00	.97	1.31	1.21***
가을	1.72	1.00	.44*	.85*	1.04	.97	.76	1.19***
겨울	1.75	.77	.52	.82**	1.07	1.09**	1.48	1.34***
상수항	-5.89	-10.16***	-9.37*	-11.48***	2.30	-1.90***	-8.63***	-3.68***
Adj.R ²	.05	.04	.29	.24	.36	.30	.39	.34
Chow-test (F값)	2.49**		11.85***		3.20***		5.60***	

* p < .05 ** p < .01 *** p < .001

가계특성변수가 식료품비에 미치는 영향은 두 집단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이 가계특성이 달라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여성가장가계에 비해 식료품비지출이 7%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가장가계의 식단이 상대적으로 소홀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계자산의 대응

변수인 자가보유변수의 경우 자가를 보유한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식료품비 지출이 3%정도 많았다. 가구주가 봉급자인 경우와 비교할 때 무직인 경우 식료품비 지출은 적었으며, 경영자 및 자유업자가구주인 경우의 지출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보다 봄, 겨울의 식료품비 지출이 적게 나타났다.

〈표 5〉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탄력성 비교

(괄호안은 표준편차)

지출비목	노인가계	비노인가계	t-test
· 식료품비	.74(.04)	.52(.01)	114.84***
· 주거비	2.18(.40)	1.68(.14)	26.04***
· 광열·수도비	.21(.12)	.26(.03)	-8.70***
· 가구·가사용품비	1.10(.22)	1.23(.05)	-12.34***
· 피복·신발비	1.52(.36)	1.71(.08)	-11.03***
· 보건의료비	1.20(.34)	1.33(.10)	-7.98***
· 교육·교양· 오락비	1.27(.22)	1.55(.05)	-26.58***
· 교통·통신비	.69(.08)	.96(.02)	-70.47***
· 기타소비지출	1.50(.14)	1.10(.03)	59.69***

* p < .05 ** p < .01 *** p < .001

주거비

주거비 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의 차이점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각 추정식의 설명력 또한 보건의료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월세, 주택설비수리, 아파트관리비, 기타 주거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비의 경우 자가소유여부 효과등을 제거한 상태에서 본 소비지출탄력성이 높은 비목 중의 하나였다. 또한 가족수가 많아짐에 따라 주거비지출은 감소하였다. 두 집단 모두에서 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그렇지 못한 가계에 비해 주거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서, 노인가계의 경우 자가의 주거비 지출규모가 비자가보다 81%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노인가계의 경우는 51%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비의 높은 비중을 월세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노인가계 가구주가 소규모자영업자의 경우 봉급자가계에 비해 주거비에 958%나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열·수도비

광열·수도비는 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유일한 지출비목이었다. 비노인가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지만 소비지출탄력성이 0.26으로 지출비목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자가를 소유한 경우 노인가

계와 비노인가계 모두에서 광열·수도비 지출이 비자가가계에 비해 각각 210%와 120%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방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겨울철의 광열·수도비가 여름철에 비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밖에 비노인가계의 경우 가족수 및 가구주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광열·수도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모형에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거주주택의 크기와의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가구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거주주택이 커짐에 따른 광열·수도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봉급생활자에 비해 소규모자영업자 비노인가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의 광열·수도비를 나타내었다.

가구·가사용품비

가구·가사용품비의 경우도 각 가계의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노인가계의 경우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구주가 국민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보다는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봉급자보다는 직장이 없는 경우 가구·가사용품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 모두에서 계절의 영향력은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여름의 경우 가구·가사용품비의 지출규모가 커지는 경향이었다. 또한 가구주 연령이 많

아침에 따라 내구재적 성향이 강한 가구·가사용품비에 대한 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노인가계와 노인가계 모두에서 나타난 공통된 결과이다.

피복·신발비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지출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비교함에 있어서 피복·신발비의 경우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Chow-test결과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피복·신발비의 경우 자녀들의 양육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첫째 원인으로 들 수 있겠고, 또한 상대적으로 젊은 가계들이 이 비목지출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추측됨에 따른 결과로 보아진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에서 가계소득과 가족수가 많음에 따라 피복·신발비의 지출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노인가계의 경우 이 비목에 대한 소비지출탄력성이 1.52로 타비목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부유층노인가계의 피복·신발에 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노인가계의 경우 남편이 없는 경우 여성노인의 피복·신발비 지출이 보다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노인가계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비노인가계는 피복·신발에 대한 지출이 자녀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녀수를 암시하는 가족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비목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며, 새학년의 시작인 봄철의 지출이 여름과 비교할 때 보다 188%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가계소득수준인 경우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계가 피복·신발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연령과 피복·신발비지출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가구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연령 또한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교육비, 식료품비 등의 자녀양육의 필수재들에 대한 지출이 우선 되어짐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밖에 가구주직업이 무직인 경우 봉급자가계에 비해서, 자가를 소유한 경우는 소유하지 못한 가계에 비해서 피복·신발비 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

지출구성비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던 노인가계의 보건의료비 지출은 가계소득, 교육수준, 가구주성별 및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전문대이상의 교육수준을 받은 경우 국졸이하의 가계에 비해 보건의료비지출규모는 89%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소득등 여타변수들이 조절되었을 때 정상시의 건강에 대한 관심 및 배려의 차이가 보건의료비지출을 줄일 수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고 보여진다. 노인가계의 경우 계절적으로 볼 때 여름철에 비해 봄철에 보건의료비의 지출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노인가계와 비교해 보면, 지출구성비에서는 큰 폭의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요인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모두에서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여성가장가정에 비해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족수, 가구주연령, 가구주직업 등은 두 집단 모두에서 보건의료비지출과 무관하였다.

교육·교양오락비

교육·교양오락비는 총소비지출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노인의 경우 소비지출탄력성이 피복·신발비 다음으로 높은 1.55를 나타내었다. 교육·교양오락비의 지출은 자녀의 수와 양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녀의 수를 반영하는 가족수의 경우 이 비목에 대해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교육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주가 국졸이하인 가계와 비교하여 중졸가계의 소비지출액이 264%가 많았으며, 비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주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그 가계의 교육·교양오락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오락비의 지출은 여름철에 비해 노인가계의 경우 가을철에 지출이 줄어들고, 비노인가계는 가을과 겨울철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인가계의 경우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 여자가장가계에 비해 83%정도 교육·교양오락비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가장의 생존에 따른 지출들이 자녀의 교육·교양오락비와 대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노인가계들은 가구주가 봉급자인 경우가 가구주가, 노무자, 소규모자영업자 또는 경영자인 경우에 비해 교육·교양오락비에 대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통신비

노인가계의 교통·통신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총소비지출, 교육수준, 연령이었다. 총소비지출규모가 클수록, 국졸자보다는 중, 고졸자의 가정일 수록, 가구주연령이 감소할수록 교통·통신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었다. 반면 비노인가계의 경우는 총소비지출, 교육수준 뿐만 아니라 가족수, 계절과 가구주직업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작용하였다. 즉 가족수가 많은 경우 교통·통신비의 지출이 적으며, 가구주가 노무자이거나 경영자인 경우 봉급자가계에 비해 이 비목에 대한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철에 비해 겨울철인 경우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이 많아졌다.

기타소비지출

마지막으로 교제비, 경조사비, 이비용, 장신구비 등을 포함하는 기타소비지출을 살펴보면, 노인가계의 경우 총소비지출액이 커짐에 따라 이 비목의 지출증가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가계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은 비노인가계의 경우에 비해 미미하였다. 가구주가 국졸인 경우보다 고졸인 경우, 봉급생활자가계의 비해 가구주가 경영자인 경우 사회활동에 따른 기타소비지출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노인가계의 경우 계절에 따른 지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모임내지는 행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의 이 비목에 대한 지출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절, 연말연시 등이 끼여있는 겨울이 가장 높은 지출액을 보였다. 가족수가 많아짐에 따라 선택재적 성향이 강한 이 비목의 지출은 줄어들었고, 가구주 연령과 비소비지출액간에는 양적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

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 비목의 소비지출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구주가 남성일 때, 또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계의 경우 기타소비지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가구주 직업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봉급자가계에 비해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가계들이 기타소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시사점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규모 및 구조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다. 노인가계는 소비지출규모나 지출비목간의 배분 형태에서 뿐만 아니라, 가계특성이 소비지출비목에 미치는 영향력의 형태에 있어서도 비노인가계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소비지출규모에 있어서 노인가계는 월평균 933,810원을 지출함으로써 1,139,143원을 지출하는 비노인가계에 비해 적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물론 부분적으로 노인가계의 가구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비노인가계에 비해 노인가계의 경우 교육·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교통·통신비에서의 소비지출액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비목에 있어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의 소비지출규모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총소비지출에서 각 비목별 지출이 차지하는 구성비의 차이를 가져왔다. 노인가계는 비노인가계보다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및 기타소비지출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피복·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보건·의료비지출이 노인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노인가계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었다. 비목별 소비지출탄력성을 살펴본 결과는 식료품비와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는 필수적인 지출항목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노인가계의 경우 비노인가계보다 낮은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하여,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경우는 비노인가계보다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노인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노인부양체계 및 노인소득증대방안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갖는 시사점은 소비지출 비목별지원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지출규모와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며 필수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비노인가계에 비하여 소비열망이 높게 나타난 식료품비에 대한 지원정책은 노인가계의 생활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저렴한 가격으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쿠폰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노인가계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되고 있는 있기는 하지만 보건의료지원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새삼 강조될 수 있겠다.

둘째,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소비지출에 대한 설명력은 모든 비목에서 노인가계의 경우 비노인가계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노인가계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수이외의 소비선호를 반영하는 보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소비패턴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근거한 정책수립이나 행동양식의 이해는 노인가계의 경우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간에는 대부분의 소비지출비목에 대한 영향요인이 다르게, 또는 요인의 영향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의 소비지출행동을 설명하고자 하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정책수립을 하고자 할 때는 비노인과는 다른 행동모델을 사용해야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향후 예측되고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 집단을 이해, 설명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듯이 노인계층은 비노인계층과는 소비지출패턴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노인가계의 경우 주요지출비목으로 나타난 보건의료비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요구되는데 만성질환의 상태등의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보건의료비의 지출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미

치는 영향력을 살펴본다는 관점에서 보건의료비 지출과 타지출비목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식료품과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보다 세분화된 지출비목에의 분석이 수행될 때 노인계층의 소비지출패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노인가계가 꺼릴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비지출, 또는 이와 상반된 비목으로 노인들의 지출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조비등의 세분항목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1) 고철기, 박능후, 김성희, 이경은(1992). 노령계층의 소득보장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 김기옥, 이승신(1990). 소비자의 경기전망과 소비지출패턴. 소비자학연구, 1(2), 15-31.
- 3) 김인숙, 최은숙(1990). 농가유형별로 본 농가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8(3), 105-125.
- 4) 문숙재, 정순희(1995). 소비지출패턴 차이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편모가족과 양부모 가족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 연구, 6(2), 53-65.
- 5) 성영애(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2-43.
- 6) 양세정(1996). 가구원수와 가계소비지출규모. 살명대사회과학논집.
- 7) 최은숙(1986). 가계소비지출의 구조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8) 최현자(1996). 가계의 신규부채수요 결정요인과 부채이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3), 59-73.
- 9) 통계청(1995). 경제활동인구연보.
- 10) Dardis, R, Derrick, F., & Leheld, A.(1981). Clothing demand in the United States: A cross-sectional analysi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2), 212-222.
- 11) Duncan, G.J., Mitchell, O.S., & Morgan, J.N. (1984). A framework for setting retirement saving

- goal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8(1), 22-46.
- 12) Fareed, A.E., & Riggs, G.D.(1982). Old-young differences in consumer expenditure pattern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6(1), 152-160.
- 13) Harrison, B.(1986). Spending patterns of older persons revealed in expenditure survey. *Monthly Labor Review*, 109(10), 15-17.
- 14) Hitschler, P.B.(1993). Spending by older consumers-1980 and 1990 compared. *Monthly Labor Review*, 116(5), 3-13.
- 15) Horton, S.E., & Hafstrom, J.L.(1985). Income elasticities for selected consumption categories: Comparison of single fema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 292-303.
- 16) Koutsoyiannis, A.(1977). *Theory of Econometrics*, 2nd ed., Macmillan Press Ltd.(London).
- 17) Moehrle, T.(1990). Expenditure patterns of the elderly: Workers and nonworkers. *Monthly Labor Review*, 113(5), 34-41.
- 18) Quinn, J.F.(1987).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Beware of the mean. *Review of Income & Wealth* (March), 63-82.
- 19) Rubin, R.M., & Nieswiadomy, M.(1994). Expenditure patterns of retired and nonretired persons. *Monthly Labor Review*, 117(4), 10-21.